

# ‘참여정부’ 마무리짓는 숨은 살림꾼

## ■ 인천출신 첫 장관급 진출 윤 대 희 국무조정실장

어릴 적 기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할 수밖에 없다. 중장년층일 경우 더 그럴 것이다. 그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부족했고 불편했다. 그래서일까. 늘 그 당시를 추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소외계층도 ‘따뜻한 가슴’으로 맞을 수 있으리라.

인천출신 정통 관료 중 최고위직에 까지 오른 윤대희(57) 국무조정실장이 그랬다.

평생을 공직에 몸 담은 경제학자로서의 날카로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다. 인천 태생 공무원 중 차관급은 여럿 있지만 장관급은 아직 윤 실장이 유일하다고 한다. 그는 인천 출신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‘높은 자리’까지 간 셈이다.

는 어느 새 천진난만한 얼굴 표정을 지었다.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눌 때완 사뭇 달랐다.

“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길영희 교장선생님이 교단을 떠나신 뒤였습니다. 그러나 길 교장께서 남기신 훌륭한 업적을 그대로 받았습니다. 개가식 도서관과 무감독시험은 제물포고가 전국에서 제일 자랑거리로 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속에서 자란 제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.”

이런 생각이 여전해서인지 인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. “인천 출신이다보니 경제자유구역, 아시안게임 등 인천과 관련 있는 일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문제는 의료, 교육분야 등 풀



### 가슴에 새긴 제물포高 교훈... 인천사랑 남달라

### “경제자유구역은 국책사업” 정부지원 아낌없이

6·25 전쟁 한 해 전 인천 남구 송의동에서 태어난 윤 실장은 열차를 세 번씩이나 갈아탄 뒤 버스를 타고, 또 걸어서 8km를 가야 하는 고단한 여정으로 아버지의 고향 충북 괴산까지 가곤 했던 옛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다. 특히 그가 나온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.

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윤 실장은 ‘학식은 사회의 등불, 양심은 민족의 소금’이란 제물포고의 교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 자랑거리를 늘어냈다. 길영희 교장이며 개가식 도서관, 무감독 시험, 제물포고의 탄생 배경 등을 얘기할 때면 그

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.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속도면에선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챙기고 있습니다. 인천은 이제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. 국가적으로 볼 때 인천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것이지요.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꼭 성공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어렵게 유지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대회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높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.”

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이며 정부 내에선 ‘장관’으로 호칭된다. 이 때문인지 국

무조정실장은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. 하지만 정부부처의 어느 누구보다 바쁘다. 국무회의, 차관회의, 각종 위원회 등 월평균 50건, 주평균 11.5건, 하루 2.3건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한다. 하루 일과가 눈코 뜰 새 없다. 오전 9시30분에 잡혀 있던 이날 인터뷰 시간도 전날 밤 늦게 갑작스레 바뀌었다. 이른 아침 급한 국무총리 보고가 생겨서라고 했다.

“언론 인터뷰를 많이 안합니다. 노출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. 아니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해 인터뷰를 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.”

어렵게 낸 인터뷰 시간 1시간30분이 금방 지나갔다. 최근 터진 태안 원유 유출사고와 강화 총기탈취 사건 등 현안에서부터 정부 각 부처의 중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.

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이밖에 저출산·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. 그만큼 이 문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. 윤 실장은 또 “내년 2월까지의 국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”면서 “참여정부 말기에 국정운영을 잘 해 다음 정권에 넘겨 주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그러면서 그는 퇴임 후를 묻는 질문엔 “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자본확충 문제 등 그동안 고민했던 각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글로 쓰거나 이를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다”고 했다. 그는 “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‘사람’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”는 지적도 내놓지 않았다.

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1949년 인천에서 나 제물포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. 또 미국 켄사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,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.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그는 경제기획원 재정계획과장, 주 제네바 대표부 재경관, 재정경제부 공보관, 정책홍보관리실장,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면서 공직사회에선 대표적 ‘경제통’으로 꼽힌다.

/정진오기자·schild@kyeongin.com

사진/임순석기자·sseok@kyeongin.com

